

[보도자료] “내 꿈은 MLB 경기 직관!” 쿠팡, 난치병 환아 위한 소원성취 행사 진행

2024. 3. 22.



- 메이커워시 코리아와 손잡고 난치병 아동 14명 초청해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오프닝 경기 관람
- 난치병과 싸우는 어린이들, 고척스카이돔에서 국내 최초 MLB 정규 시즌 개막전 관람 후 새로운 꿈, 멋진 추억 안고 돌아가

2024. 03. 22 - 쿠팡은 지난 2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메이커워시 코리아(Make-A-Wish Korea)와 함께 난치병 아동의 특별한 소원을 이뤄주는 위시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14명의 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을 초청해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척수성근위축증, 횡문근육증, 뒤센근이영양증, 골육종 등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MLB 정규 시즌을 공식적으로 개막하는 오프닝 경기라 더욱 의미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횡문근육증을 앓고 있는 황모(18) 군은 평소에도 야구경기 시청이 가장 큰 취미이며, LA다저스, 그 중에서도 오타니 선수의 팬이다. 황군은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록원’이 되는 것이 꿈으로 통계학과 진학을 위해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 황군은 “이번 소원성취 행사를 통해 오타니 선수 경기를 직접 보고 나니 야구인으로 성장하는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신모(8) 군의 아버지는 “쿠팡과 메이커워시 코리아 덕분에 메이저리그 경기를 한국에서 직관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돼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소원을 이루고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덕분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뒤센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성모(17) 군은 경기관람 중 활짝 웃으며, “야구 광팬이지만 건강 제약 때문에 관람이 어려운데 이런 좋은 기회에 특히 SD파드리스 김하성 선수 팬으로서 경기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씩씩하게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아동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치러지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을 직관하게 돼 기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는 쿠팡플레이가 프레젠틱 파트너, 마케팅 파트너, 그리고 주관 중계권자로서 서울 시리즈의 모든 경기를 선보였다. 서울 시리즈는 쿠팡 와우회원을 위한 특권으로,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서울 시리즈의 모든 여정을 쿠팡플레이에서 즐길 수 있다. 모든 중계 장면은 중계 직후 쿠팡플레이에서 풀영상 및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제공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